

일제강점기 군폐합(1914) 전후 군청사 건축행정의 절차와 방침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Polic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around the *Goon*-Rearrangement in 1914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Sunmoo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군의 갯수를 317개에서 218개로 축소시키고 군의 명칭, 관할구역 및 경계, 그뿐 아니라 군청소재지와 군청사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온 1914년 군폐합 과정에 주목한다. 연구의 목적은 군폐합 단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와 각 도 사이에 오고간 문서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취한 군청사 건축방침과 각 도 및 군의 대응, 행정절차, 1910년대 군청사의 건축상태와 업무환경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기본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문서들 중 군폐합관계서류(국가기록원 정리번호 CJA002545; CJA002546; CJA002547; CJA002548; CJA002550)와 면폐합관계서류 2개 첩(CJA002549; CJA002565) 안에 산재하는 군폐합 관련 서류들이다. 그밖에 1910년대 당시 발간된 신문인 매일신보와 기존 연구들도 주요한 자료로 사용한다. 화재나 군청소재지 이전 등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군청사의 신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조선총독부의 입장과 건축방침이 1910년대 군청사로 기존건물을 전용하거나 신축, 증개축, 개수 등 건축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는지와 당시 군청사의 건축상태 및 업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건축적 특징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연구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일제강점기 군청사 연구성과를 보완한다.

Abstract The *Goon*-rearrangement in 1914 cau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Goon* office buildings' construc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the construction of them around the *Goon*-rearrangement and also in the 1910s general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s policy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s' con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official documents for the *Goon*-rearrangement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To*, the digital images of the buildings kept in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d the newspapers published in 1910s. This paper examines what the effect the construction had under the st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was very passive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Keywords : *Goon* office building, Administrative procedure, Construction policy, *Goon*-rearrang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 서론

식민지조선 지방행정구역의 기본단위이자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기구의 하나인 군(郡)은 1910년 9월 30일 칙

령 제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공포와 함께 그 명칭·위치·관할구역이 설정된다. 이때 317개 군이 지정되는데, 대한제국 시기 지정된 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1914년 3월 1일

이 연구는 2017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ersity)

Tel: +82-41-530-2323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May 10, 2017

Revised May 29,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조선총독부는 군폐합(郡廢合)을 단행하여 군의 개수를 220개로 줄이고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조정한다[1]. 군폐합 실시 과정에서 많은 군청사가 폐쇄된 반면 새로운 군청소재지에서는 군청사가 필요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군청사의 건축(신축·증축·개축·수선)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한편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가 실시되면서 제주군과 울릉군은 각각 제주도와 울릉도가 되고, 군은 218개로 줄어들어 1945년 해방까지 그대로 이어진다[1].

군청사 건축에 대한 기존연구는 조선시대 지방관립시설이 일제강점기 군청사로 전용된 이후 증·개축된 방식을 고찰하고[2] 군청사로 전용된 기존건물의 성격을 고찰하며[3] 신축된 군청사의 배치와 평면을 유형화한 후 그 증개축 양상을 살펴보고[4][5][6], 1910년대 공통도면의 작성주체가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이었음을 밝히는 내용이었다[6]. 크게 보면 일제강점기 군청사의 건축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집중되었다. 반면 군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나 조치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군청사 건축에 큰 변화를 가져온 1914년 군폐합 단행을 전후하여 조선총독부와 도(道)가 주고받은 문서들을 분석하여 조선총독부의 군청사 건축방침, 군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1910년대 군청사 건축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문서들인데, 군청사 관련 문서는 1914년 첩된 부군폐합관계서류(府郡廢合關係書類) 5개 첩(국가기록원 정리번호 CJA002545; CJA002546; CJA002547; CJA002548; CJA002550)과 면폐합관계서류(面廢合關係書類) 2개 첩(CJA002549; CJA002565) 안에 산재한다[7]. 이 기본자료 외에 1910년대 전반의 군청사 건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910년대 발간된 『매일신보』에 난 군청사 기사들도 살펴보겠다.

2. 군폐합 이전

기존연구[4]를 통해 1912년 12월 황해 봉산군청사, 1913년 경기 여천군청사가 신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당시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의 군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청사는 대한제국기 한식 목구조 건물 그대로였을 것이다. 사진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13년 1월 12일자 『매일신보(毎日申報)』에 실린 전남 제주군청사이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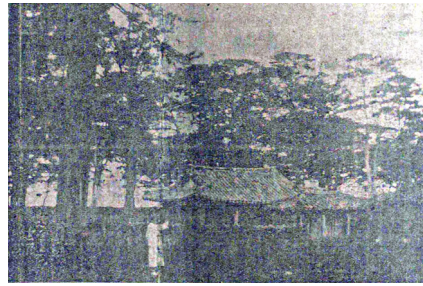


Fig. 1. JeJu Goon Office Building
(source: Maeilshinbo 1913.1.12.)

병합과 군폐합 사이, 즉 1910년대 초의 군청사 건축상태를 알려줄 조선총독부 문서는 남아있지 않고, 신문 기사 몇 건을 찾을 수 있다. 목구조 군청사가 대부분이었던 탓에 화재로 전소했다는 기사가 4건으로 가장 많다(함남 장진군: 『매일신보』 1912.9.21.; 황해 안악군: 『매일신보』 1912.11.24.; 평북 선천군: 『매일신보』 1913.1.15.; 평북 삭주군: 『매일신보』 1913.10.12.). 다음은 군청소재지를 이전했다는 기사 3건으로, 교통 편의와 일본인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이전한 충남 연기군(『매일신보』 1911.9.28.), 관할 군의 한쪽에 치우쳐 있어 중앙부로 이전한 함남 삼수군(『매일신보』 1912.1.10.)과 황해 봉산군(『매일신보』 1912.12.15.)이다. 그 다음은 청사 수리 기사 1건인데, 업무증가로 인해 청사가 비좁아져서 내부 수리한 충남 회덕군(매일신보 1913.1.29.)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주목되는 기사는 1910년 11월 29일 『매일신보』에 실린 「각 군청사 상황 수보(修報)」이다. “황해도장관 조의문 씨는 내부부장관의 훈령을 받아 관하 각 군청사의 상황을 일일이 조사하여 어제 내무부로 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3장에서 다룬 군폐합 당시 문서들로 추정하건대, 신축인가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병합 직후 내무부장관이 각 도에 관할 군청사의 건축상태를 조사시켰으리라 짐작된다.

3. 군폐합 당시

3.1 군청사의 처리방침과 개괄적인 건축 조사

군폐합 준비를 위해 생산된 조선총독부 문서 중에서 군청사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것은 조선총독이 내무부장관과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지시 「부군폐합 실시수속에 관한 조사(府郡廢合實施手續ニ關スル件)」와 그 첨부문서 「부군폐합실시수속(府郡廢合實施手續)」이

다(CJA0002547). 문서 보존상태가 나빠서 기안 및 발송 일자를 읽어내기 어렵지만, “폐합은 내년 1월 중순 발표 하고”라는 내용을 보아 1913년 생산된 것은 확실하다. 『부군폐합실시수속』은 ‘①부군폐합 실시일정, ②부군폐합 선후조처, ③폐합실시준비’의 목차를 취하는데, ② 중에 ‘폐합의 후비(後備)’ 항과 ③ 중에 ‘군청사 준비’ 항을 보면, 각각에서 조선총독은 군청사 처리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병합(군폐합을 말함: 필자 주) 결과 군청 이전(移轉)이 필요하면 이전에 앞서, 적당한 관유 건물이 있거나 임차할 만한 민옥(民屋)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이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당분간 현(現) 군청사를 충당하면서 신설을 기다리고 군청 이전 수속을 할 것.”

“새로 민옥을 빌려 이를 관유건물로서 군청사로 충당할 경우 폐합 실시 이전에 상당한 수선을 해 둘 것.”

이어서, 1913년 5월 29일 내무부장관이 각 도장관에게 발송한 『부군청사에 관한 건(府郡廳舍ニ關スル件)』은 군폐합에 관한 각 도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기안이다(CJA0002547). 이 문서에는 같은 날 정무총감이 각 도장관 앞으로 군폐합 표준을 제시한 통첩(내비(內祕) 제 114호, Fig 2는 그 표지)이 첨부되어 있다. 이 통첩의 아래 인용문에서 조선총독부가 군청사 신축에 대해 취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폐합 후의 군청소재지를 예정하고 여기에서 사용해야 할 건물의 유무(본부(本府)(조선총독부: 필자 주)는 되도록 신축시키지 않을 것임) 및 새로운 군명칭 의견을 제출하기를 바랍.”

위의 자료들에서 조선총독부는 가능한 한 군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관청사이든 민가이든 기존건물의 전용을 우선시하는 방침을 군폐합에 앞서 세워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각 도 장관에게 관유건물이든 민가이든 전용할 만한 건물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앞서 1913년 5월 29일 발송 기안에 대해, 그해 8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응답한 문서가 남아 있다. 즉, 1913년 8월 6일 경기도장관이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문서 『부군폐합에 관한 건(府郡廢合ニ關スル件)』(CJA0002545)이다.

경기도는 이 문서의 ‘폐합 후 군청소재지의 예정, 이에 이용할 건물의 유무 및 군청소재지 변경 이유’라는 항목에서 군폐합 후 도내 17개 군청소재지를 조사한 후 회답한다. 내용을 보면, ①군청사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없으므로 신축 필요함(광주·양주·진위·파주·포천), ②비어

있는 관유건물이 있으므로 신축 필요 없음(고양·부천·용인·경남·김포·강화), ③군청사로 충당할 관유건물 있으나 좁거나 낡아서 증축이나 수축 필요함(이천·안성·수원·개성·마전·연천)의 3가지 경우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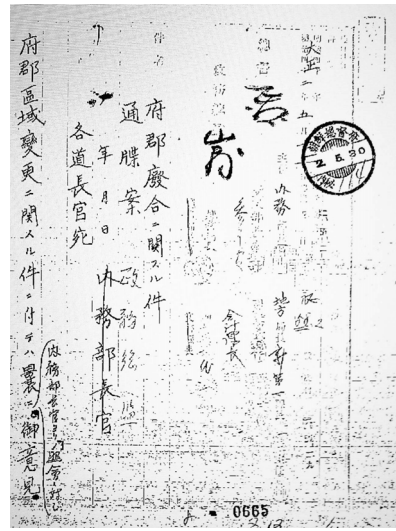


Fig. 2. A notification (secret document of no. 114)
(source: CJA0002547)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는 1913년 8월 17일 역시 정무총감 앞으로 보낸 문서 『부군폐합에 관한 건(府郡廢合ニ關スル件)』(CJA0002550)에서 ②8개 군에 대해 관유건물을 군청사로 사용(동래·창원), ④기존 군청사를 사용(울산·창녕·사천·안의·함천·산청)의 2가지 경우로 조사 후 회답한다. 자료는 없지만, 다른 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 보고했을 것이다.

경기·경남 두 도가 군폐합 후 기존건물을 군청사로 전용하겠다고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군을 기존건물을 전용한 곳으로 확인된 67개 군청사[3]와 비교해보면 몇몇은 전용 건물이 무엇이었는데 알 수 있다.

①신축 필요로 조사된 광주는 광주객사를 전용했다. ②비어있는 관유건물 사용가능으로 조사된 고양은 경기감영(Fig 3: 경기감영을 전용한 고양군청사의 정문을 1914년 촬영한 사진), 부천은 인천부청사, 김포는 300여 년 전 지어진 건물, 강화는 기존 강화군청사를 그대로 이어 사용했다. ③마지막 관유건물을 증축·개축한 후 사용가능으로 조사된 이천은 객사를, 수원은 1705년 축조된 건물을 전용했다. 한편 부천군이 인천부청사로 옮겨간 후 부천군청사는 공립보통학교로 전용되었다(『매일신보』 1914.3.5).



Fig. 3. GoYang Goon Office Building
(source: Maeilshinbo 1914.3.6.)

3.2 구체적 건축조사와 소극적 예산편성

3.1에서 살펴본 개괄적인 조사 이후, 조선총독부는 각 도로 하여금 군청사로 사용할 개별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1913년 11월 17일 기안되고 정무총감이 각 도 장관 앞으로 보낸 통첩 『부군폐합실시에 관한 건(府郡廢合實施ニ關スル件)』(CJA0002547)에서 ‘군청사 준비’라는 항을 두고 아래와 같이 지시한다.

“(一) 종래의 군청소재지 이외의 땅에 새로 군청의 위치를 정할 때는 청사로 충당할 건물을 선정한다. 관유건물일 때는 건물 평수(도면 첨부), 민가를 차입할 때는 부지, 건물 평수(도면 첨부), 가주의 주소씨명, 차입계약요령(要領)을 구비하여 12월 말일까지 신청할 것.

(二) 전항의 건물로서 현재 수리가 필요하면 그 방법 및 비액을 조사하여 12월 말일까지 경비를 청구할 것. 또한 종래 군청사를 사용할 때는 가령 부군폐합을 위해 수선할 필요가 있어도 올해는 별도로 이미 배부한 예산에 증액을 하지 않음.”

가능한 한 군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방침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각 도에 두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우선, 군청사로 사용할 관유건물이나 민가를 선정한 후 그 도면을 포함한 건축정보와 차입계약사항,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방법 및 금액을 조사하여 신청하라는 것이다. 다음, 기존 군청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선이 필요하더라도 예산 증액은 없다고 알린다. 11월 중순 기안을 내리면서 12월말까지 공사비까지 신청하도록 했으니 상당히 서두른 편이다.

이에 응한 각 도의 조사내용 역시 3.1에서 살펴본 조사보다 더 구체적이다. 평안남도(平安南道)는 1914년 1월 4일 『부군 폐합 준비에 관한 건-평안남도(府郡廢合準備ニ關スル件-平安南道)』(CJA0002564)를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다. 내용 중 ‘군청사의 준비’ 항목을 통해 관할 2개 군청사에 필요한 내부수리나 증축공사의 비용을 청구한다. 즉, ①평원군청사는 내부수리와 증축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평원군청사로 충당할 영원군청사는 좁고 실로 부패해서 신(新) 정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일부 증축해야 하고 청사 안팎도 수리할 필요 있다. 이 수선비 116원50전을 요구한다. (중략) 수선 외에 증축할 필요가 있다. 즉, 전면 2칸, 측면 8칸, 건평 18평 증축하기로 하고 그 경비 508원은 1913년 12월 27일자로 청구’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②대동군청사는 다음해 신축할 예정이지만 당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도 부속건물 중 적당한 것을 내부수리하면 우선 집무에 지장 없다. 그 위치도 나쁘지 않으니 내년도에 군청 신축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사용한다. 우선은 315원98전이 필요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동군청사에 대한 평안남도의 대응이 흥미롭다. 군폐합 후 기존 군청사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별도 예산을 배부하지 않겠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 하에서, 다음해 신축까지 기다리면서 업무를 보기에는 건물상태가 열악한 대동군청사에 대해, 도의 부속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대신 아예 신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평안남도의 보고가 해를 넘겨 다음 해 1월 이뤄진 것처럼, 다른 도의 보고도 12월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듯하다. 조선총독부는 같은 내용으로 1914년 1월 24일 『부군폐합실시방법에 관한 건(府郡廢合實施方法ニ關スル件)』(CJA0002547)이라는 통첩을 다시 내리기 때문이다. 평안남도의 보고에는 “소수의 부군청원(府郡廳員)이 이 특수사무를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도의 입장에서 짧은 기간에 군청사로 사용할 건물의 상태조사와 공사내역 및 공사비 산출 업무는 상당히 과중했던 듯하다.

4. 군폐합 이후 1910년대 후반

군폐합이 단행된 이후 회계 및 영선관련 조선총독부 문서들을 살펴보면, 해방까지 각 도로부터 관할 군청사의 파손정도와 신축순위를 정리한 보고가 이어진다. 남아있는 문서에 한해 가장 이른 보고는 1917년 9월 27일 전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지방청영선공사에 관한 건(地方廳營繕ニ關スル件)』이다. 이 문서 자체

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듬해 1918년 11월 14일 전라북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문서 『김제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金堤郡廳舍移轉—關スル件)(CJA0002583)을 보면, ‘6. 군청사 파손정도 및 그 정도로 보는 각 군청의 신축순위’ 항목에서 “군청사의 파손정도 및 신축순위에 대해서는 대정6년(1917: 필자 주) 9월 27일 전회(全會) 제1962호 지방청 영선공사에 관한 건에서 (중략) 기재하였고, 특히 그 순위 등에 변경 없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사보고는 1917년보다 몇 년 앞서 군폐합 직후부터 제출되었고, 게다가 그에 기초해 조선총독부가 신축이 시급한 군청사를 지정한 후 신축인가를 내렸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선, 1914년 5월 31일자 신문에 벌써 경북 달성군청사의 신축계획안을 조선총독부 기사가 작성중이라는 기사가 실리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14.5.31.). 또한, 각 도에 걸쳐서 군청사의 신축·개축·수리를 알리는 기사가 1919년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의주(평북) 신축: 『매일신보』 1914.10.13.; 영흥(함남) 수리: 『매일신보』 1916.7.26.; 진천(충북) 개축: 『매일신보』 1917.4.12.; 덕천(평남) 신축: 『매일신보』 1917.8.7.; 서천(충남) 신축: 『매일신보』 1918.7.7.; 재령(황해) 신축: 『매일신보』 1919.3.10.; 강서(평남) 신축: 『매일신보』 1919.4.19.).

5.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연구목적에 맞추어 3가지로 정리 하겠다. 우선, 1914년 3월 1일 단행된 군폐합을 전후하여 조선총독부와 각 도가 주고받은 군폐합 관련 문서들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가능한 한 군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방침이었음을 확인했다. 즉, 신축이 아닌 기존건물 전용을 유도했고 민가보다는 처리가 간단한 관청사의 전용을 우선시했다. 남은 자료에 한정해도 1914년 218개 중 67개 군청사가 기존건물을 전용해서 약 30%에 해당하고, 1930년대 후반에도 전용한 청사에서 불편과 위험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으므로[3], 이 방침은 꾸준히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다음, 이 방침 하에서 1914년 군폐합을 전후해서 군청사 건축의 행정절차는 도의 개괄적 조사->도의 구체적 조사와 공사비용 신청->조선총독부의 건축인가 및 예산 보조라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3.1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총독부는 군폐합에 약 10개월 앞선 1913년 5월 이전 시점에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각 도로 하여금 군폐합 후 새 군청사로 사용할 건물이 있는지, 그 건물이 관유건물이나 민유건물인지, 개수는 얼마인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개괄적 조사였다. 또한 3.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기초로 1913년 11월 중순에는 각 도는 군폐합 후 군청사로 선정할 건물이 관유건물이면 건물개요 및 그 상태와 수리필요 정도를, 민가이면 건물개요·계약사항·수리필요내역과 소요비용을 조사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조사였다.

조선총독부는 군폐합 준비과정에서 이 2단계 조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걸쳐 신축을 비롯한 군청사의 건축 수요와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필요예산, 도의 의견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폐합 직후부터 관할 군청사의 파손정도와 신축필요 공사우선순위 조사, 즉 2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사를 또다시 각 도에 지시했다. 이를 토대로 개별 군청사의 신축을 비롯한 건축인가 및 신축예산을 보조하는 3번째 단계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신축인가와 예산배정에 소극적인 조선총독부 방침 하에서, 당장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열악한 사무환경에 놓인 군으로서의 기존 관유건물의 활용, 건물의 소규모 수리, 지역유지의 기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찌감치 신축한 몇몇을 제외하면, 1910년대부터 많은 군청사의 업무환경은 열악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이는 1920년대와 1930년대 내내 군청사의 협소한 업무공간과 오래된 부재의 부패로 인한 위험을 호소하는 신문기사들이 이어진다는 기존연구[4]내용과도 호응한다.

본 연구는 군폐합을 전후하여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건축행정절차와 방침을 통해 군청사의 건축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증빙하거나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군청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는 2개 첩부에 없기에, 더 이상의 군청사 건축 관련 행정사항을 살펴볼 수 없는 점은 아쉽고 이 논문의 한계가 될 것이다. 앞으로 1920년대 이후의 군청사 건축 관련 행정의 절차와 의도를 고찰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 문서를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다룬 1910년대 건축행정의 특질을 비교적 관점에서 재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hin, Sangjun,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on, Korean Welfare Administration Institute, pp. 426-427, 2000.
- [2] Joo, Sang-Hun,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24 no. 1, pp. 7-16, Feb. 2015.
DOI: <https://doi.org/10.7738/JAH.2015.24.1.007>
- [3] Kim, Myungsun, "Remodeling and Extension of reused Goon(郡)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992-4998, July,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992>
- [4] Kim, Myungsun, "Site-Plan Types of Common Design's Goon Office Buildings and their Addition & Remodeling in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629-7634, Nov.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629>
- [5] Kim, Myungsu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constructed Goon Office Buildings and Influence of their Prototype Schem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2, no. 2, pp. 121-131, July 2016.
DOI: https://doi.org/10.5659/JAIK_PD.2016.32.2.121
- [6] Kim, Myungsun, "The Designers and the Space-Compositions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which were newly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8-13, Nov.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8>
- [7]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s of Joseonchodokbu documents, Available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listGovernmentDocExist.do> (accessed April, 2017).

김 명 선(Kim-Myungsun)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2015년 2월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사회환경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리모델링